

아라



언니, 나 요즘 좀 불안해

우리 회사 이번에 신입 공채를 아예 안 뽑는대

나 작년에 겨우 들어왔는데, 내 또래는 이제 못 들어오는 거야?



주아

어... 그거 언니가 요즘 듣는 강의에 딱 그 얘기 나와

'위치가 운명이다' 래

오후 8:12

아라



위치가 운명이라니?



주아

AI 시대에 누가 부자 되고 누가 안 되는지, 그거 결정짓는 게 '어디 서 있느냐'래

아라



그게 뭘 소리야, 좀 풀어서 얘기해줘



주아

일단 이 얘기부터 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 알아?

아라



AI 대부라는 그 사람?



주아

응. 이 사람이 그랬대

"AI는 소수를 부유하게, 다수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"

파이낸셜타임스 2025년 9월 인터뷰에서

아라

헐 무섭다



주아

노벨상 받을 때도 비슷한 얘기 했대

"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혜택이 공평하게 나뉘면 좋겠지만,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될 위험이 크다"

아라

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?



주아

그게 이 강의 시리즈 전체 주제야. 근데 힌튼 교수가 남긴 말이 하나 더 있어

"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약 5년밖에 안 남았다"

오후 8:15

아라

5년?! 진짜 급하네



주아

그래서 오늘 강의가 처음부터 30년 전 얘기로 돌아가

아라



왜 갑자기 30년 전?

주아



1992년 PC 시대 얘기야. 같은 PC를 만드는데도 마진이
완전 달랐대

아라



같은 물건인데 마진이 다르다고?

주아



마이크로소프트(윈도우 만드는 회사)는 영업이익률 38%
근데 PC 조립하는 회사(컴팩·에이서)는 3%밖에 안 됐어

아라



와 12배 차이잖아

주아



정확히 그거야. 강의도 '12배'라고 딱 짚어

아라



그럼 스마트폰 시대는?

주아



2012년 아이폰 — 애플이 60% 가져가고, 조립하는
폭스콘은 1%

이건 별도 그래프에서 '15배'라고 나와

아라



그럼 지금 AI는?

주아



엔비디아 GPU 마진이 무려 75%래

폭스콘이랑 비교하면 **50배** 차이

30년 동안 벌어진 격차

12 → 15 → 50배

같은 물건을 만들어도,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마진이 이렇게 갈렸다

아라



미쳤다... 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?

주아



혁명 초반엔 항상 인프라 쪽이 마진을 독점하거든

근데 문제는, 소비자 쪽에서도 누가 돈을 벌어야 이게 계속 돌아가

아라



소비자 쪽 회사들은 지금 어떤데?

주아



지금 SaaS 회사들 다 어려워. AI 모델 만드는 회사(오픈AI·제미니)도 아직 흑자 불안정하고

아라



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

주아



이대로 안 풀리면 닷컴버블 같은 캐즘 온대. 근데 일단 왜
마진이 이렇게 쏠리는지부터 봐야 돼

아라



옛날엔 R&D 잘하고 브랜드 있으면 돈 벌었잖아. 이제
아니야?

주아



맞아. 옛날 스마일커브가 있었어 — 왼쪽 끝 R&D·설계,
오른쪽 끝 브랜드·서비스가 돈 되는 자리

1992년에 대만 에이서 창업자가 만든 개념이래

아라



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다는 거지?

주아



응, AI가 설계까지 하니까 그 왼쪽 끝 자리가 바뀌었어

새 왼쪽 끝은 **자본 · 데이터 · AI모델 · 플랫폼**

아라



왜 하필 저 네 개야?

주아



자본은 AI가 못 만들잖아. 데이터도 마찬가지로

아라



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해?

주아



엔비디아 얘기 진짜 재밌어

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하려고 소프트웨어 회사들 자본으로 다 사들였대

아라



돈 많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야?

주아



근데 정작 없는 게 있어 — 도로 주행 데이터

자율주행 하려면 실제로 차가 도로를 달린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

아라



테슬라 같은 데는 있겠네

주아



정확해! 테슬라는 100억 마일 데이터 있대

아라



우와,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있구나

주아



그래서 그게 강력한 해자래. 우버도 비슷한 이유로 요즘 몸값 올라가

아라



우버가 왜?

주아



아무리 AI 회사가 강해도 우버처럼 전 세계 택시
운행하면서 쌓은 도로 데이터는 없거든

아라



그럼 이 자본·데이터·AI모델·플랫폼 가진 애들이 계속
이기는 거야?

주아



지금은 그래. 강의는 이걸 '렌트의 시대'라고 불러 — AI
시대 본격화 전까지 이 넷이 우월한 값을 받는 과도기

아라



'지금은'이라는 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단 거야?

주아



응, 플랫폼조차 머지않아 흔들릴 수 있다고 강의도 인정해

아라



그럼 오른쪽 끝은 뭐야?

주아



몸(바이오) · 창의력 · 맥락 읽는 눈치 · 에너지 · 원자재

AI가 아직 못 만드는 것들

아라



브랜드는? 나이키 이런 것도 안전한 거 아니야?

주아



그것도 아니래. 요즘은 'AI한테 물어보고 산다' 시대잖아

디즈니·나이키도 요즘 부진하대

아라



헐 그것도 무너지는구나

AGI 되면 창의력도 뺏기는 거 아니야?

주아



그 얘기 1950년대부터 나왔대. "10년 뒤면 AI 시대 온다" 이러면서

근데 진짜 온 건 70년 지난 2020년대야.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게 강의 입장

아라



아 다행이다, 조금 안심

주아



그래도 에너지·원자재는 지금부터 중요해진대.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쓰인다고

아라



그럼 가운데는?

 주아

코딩·번역·법률·설계처럼 AI가 배울 수 있는 건 다 가운데로 밀려나서 사라져

아라 

코딩도?

 주아

웃긴 게, AI가 자기 만든 코딩 개발자 일자리부터 제일 먼저 뺏었대

아라 

그럼 코딩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야?

 주아

다는 아니고. AI를 잘 쓰는 사람은 오히려 '증강 인간'이 돼서 더 잘나간대

아라 

증강 인간이 뭐야?

 주아

AI를 능숙하게 써서 능력을 확장한 사람. 문제는 AI를 못 쓰는 사람 자리를 그 증강 인간이 대신 차지하는 거

아라 

결국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네



주아

오, 정확해

아라



그럼 그 가운데 있는 회사들은 지금 어떤데?



주아

SaaS 회사들 얘기 들어봐. 원래는 '1명이 10명 못 할 것'이라 예상했대

아라



근데?



주아

실제론 1명이 100명 못 하고, 내년이면 1,000명 못도 한대

아라



말도 안 돼



주아

미국에는 벌써 직원 10명짜리 유니콘 기업(매출 1조 넘는)도 나왔어

아라



그래서 SaaS 회사들 주가는 어떻게 됐는데?



주아

세일즈포스 -28%, 워크데이 -33%, 인튜이트 -46%,
아틀라시안 -35%, 어도비 -25%

다 합치면 시총 1~2조 달러가 증발했대

아라



어도비도?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그거?



주아

응, 영상편집·썸네일 만드는 것도 AI가 대체되는데, 세무·
인사 업무는 그것보다 더 빨리 대체될 거래

아라



미국에선 법률 서비스도 벌써 타격받았대며?



주아

맞아 벌써 그렇대

아라



잠깐, 우리 회사도 SaaS 같은 거 파는 회사인데...



주아

음... 그러니까 이 강의가 남 얘기가 아닌 거지

아라



무섭다 진짜

 주아

그래서 강의가 계속 강조하는 게 '어디 서 있느냐'야.
가운데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

아라



그럼 진짜 내 얘기로 돌아가서... 신입 왜 안 뽑는 거야?

 주아

한국 얘기부터 해줄게. 한국은 1953년부터 지금까지 1인당
소득이 537배 늘었어

아라



537배?!

 주아

인적 자본, 그러니까 '사람 열심히 교육시키기'로 이론
성장이야. 근데 그게 AI 시대엔 제일 먼저 무너지는
자산이래

아라



왜 하필 그게 제일 먼저야?

 주아

올해 1월 기준 청년고용률 43.6%, 5년 만에 최저래

20대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줄었고, '쉬었음' 인구는
44만 명으로 역대 최대

아라



구인배수는?



주아

0.36, 역대 최저

아라



왜 나부터야? 왜 청년부터?



주아

AI가 신입·수습이 하는 일부터 제일 먼저 대체하거든

회계사도 신입은 이제 안 뽑는대. AI가 실무를 하니까

아라



그럼 아예 회계사가 없어지는 거야?



주아

그게 아니라, 기존 경력자들이 AI로 몇 배 더 일할 수 있게
되니까 신입 훈련시킬 자리가 없어지는 거래

아라



그 얘기 누가 한 거야?



주아

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그랬대

"신입 채용 0명 시대, AI 잘 쓰는 사람과의 경쟁이다"

아라



무섭다...



주아

미국은 더 심해. 5월 15일에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가 애리조나 졸업식에서 'AI 시대가 왔다'고 했다가 학생들한테 야유받았대

아라



왜 야유를?



주아

기업들이 신입을 거의 안 뽑으니까. 미국은 이미 신입 채용 0명 시대 문턱이래

아라



우리나라도 곧 저렇게 되는 거야?



주아

2~3년 시차 두고 따라간대. 근데 한국은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더 빨리 올 수도 있대

아라



그럼 우리나라 회사는 다 위험한 거야?



주아

아니, 갈려. HBM 만드는 SK하이닉스·삼성은 영업이익률 60% 넘어

아라



60%? 대박이네



주아

근데 삼성SDS나 LG CNS 같은 SI 회사는 12%밖에 안 돼

아라



왜 그렇게 차이가 나?



주아

SI 업무는 AI 에이전트가 대신할 수 있대. 그래서 '한국판 SaaS 학살' 위험이라는 거야

아라



그럼 동남아나 인도에 투자하는 건 어때?



주아

강의는 그거 투자 가치 없다고 딱 잘라 말해

아라



왜?



주아

인적 자본으로 뒤흔게 추격하는 나라들이잖아. 근데 로봇틱스·AI가 그 인적 자본 자체를 대체해버리니까

아라



그럼 어디가 대안인데?



주아

에너지나 원자재 무기로 가진 개발도상국. AI가 그건 못 대체하거든

아라



네이버는 어때? 우리나라 대표 IT 회사잖아

주아



네이버도 사실 전망이 밝지만은 않대

AI 모델 자체를 지배하지 못하면, AI가 못 베끼는 자기만의 강점을 빨리 찾아야 한대

아라



그런 회사가 한둘이 아니겠네

주아



맞아, 그래서 강의가 계속 '양 극단으로 움직여야 한다'고 강조하는 거야

아라



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돼?

주아



이번 강의에서 강사님이 딱 두 가지만 꼭 집어서 말했어

① 대학교 1·2학년이면 최선을 다해 조기 졸업하라

② 중·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교육을 아예 새로 설계하라

아라



나는 이미 취업했는데?

 주아

그건 강의가 꼭 집어 말한 건 아니야. 딱 이 두 개가 강의가 직접 밝힌 권고 전부래

아라

 그럼 나머지는? 주아

나머지는 질문 세 개만 던지고 각자 생각해보라는 거야

① 내가 다니는 회사·하는 일의 마진이 스마일커브 어느 자리인지

② 내 일이 AI가 배울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

③ (나중에) 자녀 무기가 인적자본인지, 자본·데이터·창의력인지

아라

 강의가 4년 대학 지식이 AI 3초 답변 수준이면 그건 더 이상 인적자본 아니라고 했대? 주아

어 맞아, 딱 그렇게 얘기했어. 그래서 창의력·통찰력, 그리고 데이터 다루는 능력이 새로운 인적자본이래

아라

 머스크는 뭐래? 완전 다르게 본다며

 주아

머스크는 "유토피아가 자동으로 온다" 파야

15~20년 있으면 일 안 해도 다 부자 될 거래

아라

 그건 좀 순진한 거 아니야? 주아

강의도 그렇게 봐. 규제 피하려는 말 아니겠냐고, 절대 현실 안 될 거래

아라

 그럼 노벨상 받은 두 사람은? 주아

아세모글루(경제학상)는 "1,000년 동안 신기술은 항상 위쪽이 먼저 차지했다"래

산업혁명 때도 상위 1%가 먼저 먹고, 나머지는 한참 뒤에나 혜택 봤대

아라

 그때 얼마나 심했는데? 주아

탄광에 10살도 안 된 애들 넣었대. 좁은 갱도에 어른이 못 들어가니까

아라



헐 진짜 끔찍하다

주아



그게 아세모글루가 드는 예시야. 힌트는?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

아라



"풍요는 자동으로 안 나뉘진다" 그 사람?

주아



맞아, 그게 핵심이야. AI 생산성은 오르는데 분배는 저절로 안 된다는 거

아라



그럼 강의는 누구 편이야?

주아



노벨상 받은 두 사람 쪽에 무게를 둔대

아라



그럼 결론이 뭐야?

주아



이 시리즈는 "사회가 뭘 해야 하나"가 아니라 "개인이 어떻게 이 풍요의 수혜자가 될까"에 집중한대

아라



그럼 오늘 얘기 정리해줘

강의가 남긴 질문 · 권고

- 01** 자가진단 ①

— 내가 다니는 회사·하는 일의 마진은 스마일커브 어느 자리인가
- 02** 자가진단 ②

— 내 일은 AI가 배울 수 있는 영역인가, 아닌가
- 03** 자가진단 ③

— (자녀가 있다면) 자녀의 무기는 인적 자본인가, 자본·데이터·창의력인가
- 04** 강의의 권고

— 대학 1·2학년은 조기 졸업 / 중·초등 자녀는 교육 재설계 (강사가 직접 밝힌 권고)

아라



와 오늘 강의 진짜 내용 많다

근데 다음 강의는 언제야?

주아



2강은 '3,000배의 법칙'이야

1997년에 편지 한 통 쓴 회사 있는데, 그 회사 주가가 30년 뒤 3,000배 됐대

아라



3,000배?! 1,000만 원이면?

주아



300억

오후 9:02

아라



미쳤다



주아

다음 강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

아라



좋아, 기대할게 언니

근데 나 오늘 얘기 듣고 진짜 조기 취업한 거 다행이다 싶어



주아

그니까. 나도 아까 그 세 가지 질문 떠올리니까 좀 뜨끔하더라

아라



언니는 어느 쪽인 거 같아?



주아

글쎄... 그건 다음에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ㅋㅋ

아라



쿨